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49년
2020년 7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48 호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해탈절 종령 법어



종령 법공 대중사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향을 맞이하여,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지혜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49일 간의 장기 불공을 무사히 마치게 됨은 승속이 일체가 되어 깊은 신심과 정진력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진수행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은 전례 없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 세계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 49일 간의 장기 불공을 해운 우리 진인행자들도 곤란함과 불편함은 매우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향법회는 현 시국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불공이자 법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요,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일체중생을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종 코로나 소멸'을 서원하며 나라와 전 세계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탈하

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다 함께 서원합니다.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향일을 7월 15일로 정한 것은 우란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란분절은 불가에서 음력 7월 15일이지만 총지중은 태양력에 기준하여 양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로 정함과 동시에 이날을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향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우란분절이란 목련 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과 여러 대중이 다함께 모여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린 날입니다. 한국불교계 종단에서는 음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 백중일이라 하지만, 총지중에서는 음력 대신 양력 7월 15일을 지정하여 '해탈절(解脫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해탈절 법회는 고통에 빠진 선망부모를 건져내는 망자의 해탈은 물론이요, 나아가 일체중생이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선망부모는 해탈하여 극락왕생하고 전 세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해탈하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끝으로,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고, 일체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며, 일체 재난이 속히 소멸되기를 범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나미반메훤.
옴나미반메훤.
옴나미반메훤.

총기 49년 7월 15일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불교총지중, 어르신 복지에 '사무량심' 펼친다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왼쪽부터 사회복지재단 김태원 과장,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이사 덕광 정사, 이사장 인선 정사, 성북구청 이승로 구청장, 어르신복지과 맹홍재 과장, 어르신시설팀 이기원 팀장 <사진 전서호 기자>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이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있는 구립 노인복지시설 석관실버복지센터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성북구청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어르신 복지사업에 나섰다. 이사장 인선 정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성북구청에서 이승로 구청장과 만나 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인선 정사는 "재정적인 부분을 특히 투명하게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는 장소를 제공하

고 싶다."고 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에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현재 복지센터는 노후 엘리베이터와 테라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훌륭한 재단에서 맡아줘 기대가 크고, 앞으로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협약체결로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운영을 맡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달 초등생 돌봄을 위한 강남구 다함께 키움센터 수탁에 이어 이날 업무협약으로 영유아와 어린이에서 어르신복지까지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대하는 발판이 되었다.

협약식이 끝나고 이사장 인선 정사는 이사 덕광 정사, 김태원 과장을 대동한 가운데 석관실버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나석원 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돌아봤다. 또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격려와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2009년 설립돼 하루 평균 300여 명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성북구청 어르신 복지과의 후원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아 승강기 설치와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센터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및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 중에 있다.

박재원 기자

만다라의 세계

"만다라는 교주이신 범신 대일여래 부처님을 중앙에 두고 불보살과 호법성중들이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예술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법계 궁입니다."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가 총지사 서원당에서 중무원 교육 중에 만다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전서호 기자>



중/조/법/어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불이 입게 하여 자손만대 드리우게 추복불사 할지니라.

지면안내

- 4면 이달의 법문
- 8면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 6면 심념처란 무엇인가?(2)
- 11면 부처님오신날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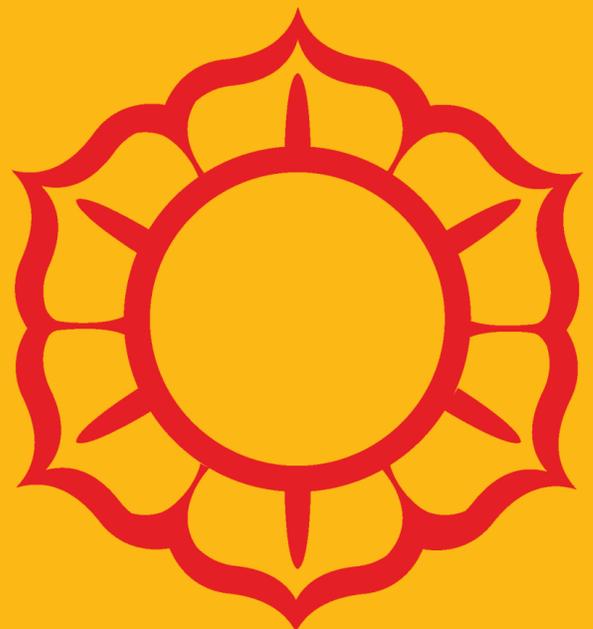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해탈절 법회안내

하반기 49일 불공의 공덕으로 국태민안과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교도가정에 일체재난 소멸과 조상영식, 선망부모의 추선공덕을 서원합니다.

일시 _ 총기 49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사회복지재단, 사회 곳곳에 자비 나눔 실천

이웃돕기, 노인복지, 장학사업 등 꾸준한 후원 있어 가능



난 12월 16일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총기 4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정토 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으며, 다문화, 탈북자지원에도 금일봉이 전달되었다.

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복지관에도 법인 전입금을 통해 입학식과 장교절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보냈으며, 여름나기 간식 지원 등에 2천 5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양지동제1복지관에는 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1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는 최초로 초등학교 돌봄을 위한 국공립 돌봄센터 강남구 다함께키움센터(세곡)와 노인을 위한 여가 복지시설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를 수탁함에 따라 작년까지 8곳에서 총 10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사무국 김태원 과장은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이며, 이들의 정성이 그대로 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쓰인다.” 밝히며, “십시일반 보내주시 후원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후원에 대한 감사와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02-552-1083, 후원계좌= 우리은행 122-177171-13-104(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이 총기 48년 작년 한 해 5천만 원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 장학사업, 노인복지 등 사회 곳곳 필요한 손길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지원 사업은 재단 자산 및 보유 기금을 제하고도 사원 모금과 정기적인 교도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지난 5월 26일 통리원에서 열린 총기 49년 제1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정기이사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재단으로 보내진 후원금은 총 34,374,000원으로 총기 48년에 대비해 450여만 원이 증가되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재단에 후원 중인 후원자를 비롯해 이름을 밝히지 않는 후원자들의 꾸준한 자비희사로 성금 모두를 취지에 맞도록 후원 중이라고 재단은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진행해온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한 가구를 상대로 매달 30만 원씩, 또 긴급지원으로 50만 원이 후원되었다. 포항 수인사(주교: 범일 정사)가 매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실시 중인 반찬 배달 봉사에도 지난해 6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겨울철 김장 나누기에도 2백만 원이 후원되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주관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희망은돌따뜻한겨울나기 사업’에도 동참하여,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도 모두 5백만 원이 보냈다.

재단은 작년 한 해 장학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작년에는 한국불교기자협회에 총지종 불교 언론인 자녀장학금을 신설하고, 불법 흥포를 위해 애쓰는 기자들의 자녀들에게 매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2일 개최된 ‘2019 한국불교기자협회의 밤 및 한국불교 기자상 시상식’에서 첫 상금 전달식을 했으며, 해외 장학사업으로 필리핀 오지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도 20만 원씩 매달 지급했다.

이밖에도 연말연시 이웃돕기 일환으로 지



자료사진=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위), 일원어린이집(아래)

전 운천사 주교 무공 대법사 열반

왕생극락과 구경성불 지심으로 서원



총기 28년(1999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이듬해인 총기 29년 향마급 대법사를 품수하고 창원 운천사 주교로 부임해 중생제도와 교화를 위해 용맹정진 하였다.

장례식에서 가족을 비롯한 동참 스승과 대중들은 인세인연을 다해 입적한 무공대법사영시의 왕생성불을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을 빌어 왕생극락과 구경성불을 지심으로 서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종단 차원의 고결식과 추선불사는 따로 봉행하지 않았으며,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통리원 집행부와 교무들이 조문하여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며, 전국의 스승들도 개별 조문하였다.

불교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위해 정진하다 지난 2003년 운천사 주교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무공 대법사가 세수 81세로 지난 6월 3일 입적, 사흘간 법륜회장으로 창원시립상복공원식장에서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다. 무공 대법사는

‘불교총지종 창종 50년사’ 발간 위한 첫발

6월 16일, 17일 양일간 킥오프 워크숍 통리원서



종단 50년 역사의 기록과 종단 미래의 이정표가 될 ‘불교총지종 창종 50년사’ 발간을 위한 첫 발로 킥오프(Kick-Off) 워크숍이 지난 6월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교정부 주관으로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통리원 종무원을 비롯 50년 사 발간 대행사인 코스토리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50년 역사책 발간을 위해 구성원 간의 기초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불교총지종 소개 △종단 역사 △현황과 과제 △조직 및 기관의 역할 등의 아젠다로 구성되어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다.

원당 정사(총지사 주교)는 1강에서 총지종 범장원이 발간한 『불교총지종』을 교재로 종단의 탄생과 정통불교 종단으로서의 사상과 교리

체계를 설명했다. 2강에서는 기로스승 지성 정사가 불교총지종의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종단사를 강의했으며,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직접 강연을 맡은 3강에서는 종단의 당면 과제와 방향에 대해 좌담 형식을 빌려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또 4강에서 교정부장 승원 정사는 종단 구성 조직도를 제시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종단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자들과 본존과 만다라 등을 전권하며 상징과 의미에 대해 설명을 마쳤다.

교정부장 승원 정사는 “종단 50년에 대한 통합적인 자료 정리를 통해 우리 역사를 기술해낼 계획이다.”며, “과거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총지 흥포를 위한 중요한 사료가 되도록 용맹정진 할 것”이라며, 50년 사 발간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종단 50年史 발간 사료 공모

포스터 제작, 전국 사원에 배포



‘불교총지종 50年史(가칭)’ 발간을 위한 사료 공모를 시작한다.

불교총지종 50년사 발간위원회(위원장: 인선 정사)는 지난 6월 30일 종단 50年史 발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사료 공모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하고, 전국 사원 및 기로스승 앞으로 공문과 포스터 발송을 통해 사료를 수집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당초 포스터는 사원 방문과 교구회의 시 참여하여 직접 설명하며 배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우편으로 대신 우선 발송하여 사부대중의 동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동봉한 포스터는 사원에 부착하고, 교도들에게도 알려서 사료 공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모 대상 사료는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총지종의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기록물과 소장 품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보낼 수 있다. 사료를 보낼 때는 자세한 설명과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모 마감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불교총지종 총리원 홍보실(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문의 02-552-1080 / 이메일 news@chongji.or.kr)에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한다.

한편 발간위원회는 위원장 총리원장 인선 정사 △발간위원 우인, 범경, 원당, 범일, 덕광 정사 △감수위원 남해 정사, 지현, 보현 전수 △편집위원 승원 정사, 총리원 박재원 국장, 이선희 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1대 국회 정각회 출범

이원욱 의원 회장 추대

제21대 국회 정각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국회 정각회장에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국회 정각회는 6월 29일 오전 7시 30분 국회본관 3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각회장과 함께 부회장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이현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오영훈 의원을 선출했다.

또 수석 간사에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감사를 맡았다.

아울러 정각회는 총회에서 오랫동안 정각회 발전에 노력한 4선 이상 의원인 서병수, 이명수, 정갑윤, 김영주, 안구백 의원을 고문으로, 주호영 의원과 강창일 전 의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제21대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는 40명의 국회의원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대 직후 이원욱 신임 정각회장은 “비록 국회에선 여야가 대치하더라도 정각회가 물밑에서 화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스님은 ‘화쟁사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2)

지혜의 눈

전염병, 공존공생 원리 파괴한 세계관서 비롯 불교는 생명이라는 가치에 경중(輕重)이 없어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드러난 실상은 어떠한 무장으로도 코로나 19의 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치료제는 올해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예방약인 백신은 빨라야 2021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는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 동물들을 거의 멸종시켜가는 과정에서 야생 동물에게 기생하던 병원균이 인간에게로 전이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간(種間) 이동 때문에 발생한 전염병의 발생 원인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과 같이 인간 중심의 육망 충족 체계를 확대하고 계속 동식물의 서식지인 자연을 파괴한다면 또 다른 코로나 19는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두려웠던 인간 중심의 소비와 행태는 더이상 가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공존공생의 원리를 파괴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비롯하였기에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원전 6~5세기에 본격적인 철기의 보급으로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문명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가 공존하던 상황은 거대한 제국의 성립으로 통합되었고 이러한 제국의 틀을 형성하는 새로운 수많은 제도와 사상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마우리아 제국, 진한(秦漢)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동시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제국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제국의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알렉산더 제국의 그리스 종교, 페르시아 제국의 조로아스터교,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 진한제

국의 도교와 유교가 그것입니다.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기의 석가족의 국가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사이에 놓인 약소국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이던 그 시기에 부처님은 가장 강력한 반전(反戰) 구호인 불살생 또는 불해(不害)로 한역된 아힘사(ahimsa)를 주장하였습니다. 약소국은 평화를 주장하고 강대국은 전쟁을 펼치는 시대였지만 다수의 민중은 평화를 갈망하였습니다. 제국이 성립된 후 사회 안정을 위해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은 일반 대중에게 호소력이 강했던 불교와 자이나교를 끌어들이어 전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동서양의 종교 중에서 가장 평화적인 종교는 불교와 자이나교입니다. 두 종교가 주장한 생명은 인간중심의 가치를 넘어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에 위계(位階)를 두지 않지요. 불교와 자이나교는 생명이라는 가치에는 경중(輕重)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종교에서 교세가 가장 작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평가받는 불교가 과연 21세기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가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의 공덕을 온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요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길은 오로지 수행의 공덕으로 주변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나 한 사람의 수행(修行)이 온 우주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정정(心淸淨) 국토정정의 국토를 이제는 자연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내마음의 등불 단음사 남해 정사 편

우주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이니라.
풀과 나무들은 아름답고자 하는 소망에 의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고 씨앗을 싹틔우는 것이니라.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소망은 비단 풀과 나무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유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즉 행복이란 바로 마음이 아름다워진 상태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감정이니라. 따라서 아름다움을 모를 때 사람은 불행한 법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이 우주와 합일된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그것을 관조함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 때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현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소망과 욕망을 혼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니라.
욕망에 아름다움을 더하면 소망이 되고 소망에 아름다움을 빼면 욕망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라.

(이외수 장편소설 <벽오금학도> 중에서)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단음사 남해정사님은 건화사 정원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찐보리수 108염주 ₩ 40,000



연명의료 26

웰다잉을 위하여

법상 정사

웰다잉의 3요소

1.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2. 자신이 가장 편한 장소에서,
3. 육체적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삶이 보인다고 했다.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준비를 웰다잉이라고 한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마무리가 안 좋으면 죽음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웰다잉을 위해 어떻게 조언하고 있을까?

1) 건강 체크

죽는 날까지 큰 병에 걸려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건강 체크를 한다.

2)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하거나 심폐소생술, 수혈 등을 받을지 미리 정해둔다.

건강할 때 결정하거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환자나 가족이 정하도록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건강할 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도록 한다.

3) 자서전 쓰기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일어난 일들에 감사하고, 반성하며, 자신이 후대에 전해줄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작업을 위해 자서전을 쓴다.

4)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하기

자녀 간 재산 분쟁을 막고, 남은 이들의 안위를 보살피며 살아생전 신세를 지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표현으로 유언장을 작성한다.

금전적인 내용뿐 아니라, 유언장 작성 시 삶의 가치와 지혜를 나눠주는 말로 자서전 형태로 남기면 좋다.

5)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남은 내 삶 가운데 하지 않으면 후회될 일과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6) 마음의 빗 청산하기

돈이나 빌린 물건 등 물질적인 빚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마음을 털어놓아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한다.

7) 자원 봉사하기

건강할 때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의미 있는 봉사를 통해 이웃을 돕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일임을 잊지 말자.

8) 추억의 물품 보관하기

기억하고 싶은 사진이나 편지, 선물, 기념품 등을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둔다. 소지하고 있던 물건 중 나눠줄 물건, 버릴 물건 등을 정리한다.

9) 장례 계획 세우기

자신이 사후에 진행될 일들을 미리 장례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을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10) 내세에 대한 소망 가지기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이생이 끝이 아니라 후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므로 생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일어나지 않고 이생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한다.



심보이야기 9

법선 정사

업(業)종자와 인식

‘업’은 인과성과 윤리성이 바탕

불교에서는 다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神)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다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석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가 인간의 행위(Karma)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업이라 하는데 이 말은 범어 Karman을 번역한 것이다.

*Karman*은 ‘완수하다, 만들다,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Kr’가 그 어원으로, ‘활동, 일, 행위’ 등으로 번역한다. 불교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이라 쓴다.

업 이론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因果)의 법칙’ 위에 성립된다. 그리고 윤리성에 기초한 선(善)한 행위와 악(惡)한 행위라는 ‘윤리적인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업 이론은 인과성과 윤리성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은 마치 향을 태울 때 향이 다 타서 사라진 뒤에도 향기가 옷에 배어들어 남게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어떤 흔적이나 세력을 남긴다.

업이 남긴 이 세력을 업력(業力)이라 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에너지로 되어서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업력은 존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動力)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는 그들의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현재 ‘업’, 미래를 결정하는 재료

업은 이 생(生)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업은 존재의 현재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짓고 있는 업은 그 존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재료가 된다.

인간의 행위를 업이라고 했지만 모든 행위가 업은 아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보(果報)를 초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행위는 업이 될 수 없다.

과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의도적인 행위여야 한다.

둘째, 윤리적인 행위여야 한다. 즉 선한 행위이거나 악한 행위여야 한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위, 즉 무기업은 중성적인 업으로서 무정란(無精卵)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전인적인 행위를 삼업(三業)

우리가 대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많은 대상 중에서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대상을 향하려고 하는 행위의 가능성이 업력종자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8식에 일정한 업력 종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전5식은 인식작용을 할 수가 없다.

전5식은 대상이 있어야만 인식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력 종자가 대

행복과 불행은 인간 행위(Karma)에 의해 좌우 마음 변화를 주도하는 수행으로 깨달음 향해야

유식에서는 전5식은 근본적인 제8식에 의하여 유지되므로 전5식이 인식하는 바탕에는 제8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다. 전5식은 제8식에 저장된 종자의 업력에 따라 작용을 한다. 이것은 종자의 업력이 먼저 움직이고 이어서 업력에 따라 대상을 선택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떤 대상이 우리들의 전5식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상이 먼저 있어서 전5식이 인식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종자의 업력이 먼저 움직이고, 전5식이 따라간다.

다만 종자의 업력이 워낙 미세하고 은근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우리들이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전5식이 상대하는 대상은 물질이기에 물질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력을 지니지 못한다. 마음만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 대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가라는 마음의 문제이다.

상이라는 인연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전5식을 움직여 인식작용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통 인간의 전인적인 행위를 삼업(三業)이라 하고, 몸의 행위인 신업(身業)과 입의 행위인 구업(口業)과 뜻의 행위인 의업(意業)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신업과 구업을 사이업(思已業)이라 하고 의업을 사업(思業)이라 한다.

사이업(思已業)인 신업과 구업은 사업(思業) 즉 생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불인 이름이다. 즉 의업이 먼저 일어나고 신업과 구업이 따라 일어난다는 뜻이다.

결국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한 이후에 몸과 입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는 결정되며,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어떤 종교보다도 마음의 변화를 주도하는 수행으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여 행복을 얻고자 한다.

착한 마음에서 행복이 올 수 있으며, 나아가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중생에서 깨달음의 부처로 나아간다.

실지사 교도 광고

LEVAI N A T U R E L

주방세제!!

아직도 액체 만을 고집하시나요?

르뱅나투리셀은

천연원료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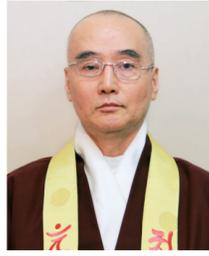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피부에 좋은 제품

대표 천민수 | 구매처 010 5248 0322 | 개당가격 5,000원



비대면 교화



개천사 주교 범등

지난 상반기 49일 불공은 처음 범회를 시작하는 날부터 참석자 없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회향되었다. 창종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현상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어지면서 범회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공문이 이어지고 사원에서의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었으며, 출입자의 신분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게 되었다.

범문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대중 범회는 중단되었다. 이렇다가 신도들의 신심이 떨어지고 신

비대면 범회 설법이였다. 우리 지역에서 매일 수백 명씩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 최고 팔백 명에 달하는 가운데 대낮에도 도심은 텅 비고 가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사십구재 천도 불공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중에는 유가족들도 천도재에 참석하기를 스스로 중단하였고 칠칠재 회향 불공 때에도 오지 않았다.

신도들의 사원 출입이나 범회에 동참하는 것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난 2월 중순 지역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5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

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법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교화법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미 사회에서는 비대면으로 더 편리하게 사업을 하거나 성공한 기업들도 있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조상 불공을 봉행하고 있다. 종조님께서는 조상 불공의 공덕을 설했다. 몇 해 전에 열반하신 청화스님은 일찍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출가하였고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불사를 하기도 했는데 스님은 신도들에게 ‘조상 불공하라’고 교화를 하시고 조상 불공하면 사업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평안하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십수 년 전에 조상 불공을 회향한 어떤 보살이 찾아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며 질문을 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하시던 서원과 불공을 계속해서 더 하라고 하니 “언제까지 더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하세요.”하고 가르쳐주었는데 3주일쯤 지난 후 보살님이 웃으며 찾아와서 “남편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를 후 다시 찾아왔다. 먼저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저도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라고 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혜가 없어 조상 불공을 의심하면 손톱만큼도 공덕이 없을 것이다.

선망부모와 조상은 나의 복전이다. 조상 불공은 그 복전에 복의 종자를 심고 가꾸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은혜 갚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서원 정진하고, 불공, 작부하며 조상 불공을 정성껏 하면 공덕이 있게 된다.

우리 모두 조상 불공에 정성을 다해 정진합시다. 성도합니다.

법문은 인간 영혼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감로수 조상 불공은 복전에 복의 종자를 심고 가꾸는 일

행 생활에도 퇴굴심이 생길 것 같은 우렁가 일어났다. 그래서 절에 오지 못하는 신도들에게 법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했다.

전염병 확산, 유례없던 범회중단

불교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시작되었고 설법으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시고 인연 중생들을 교화하시어 깨달음의 밝은 삶으로 인도하셨다.

법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불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뜻밖의 전염병 확산으로 범회중단이라는 유례없던 일이 발생했고 그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래서 사원 범회를 진행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법문을 끊지 않고 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A4용지 3장 정도의 법문을 작성하여 신도들에게 문자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매 자성일 범회와 월초 불공 회향, 상반기 불공 회향, 부처님오신날 등에 법문을 보내 범문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가족들과 자녀들의 만류와 알 수 없는 무증상자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범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소멸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외에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가 모두가 지치고 절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절망한 사람은 대담해진다.’고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비대면 교화법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자들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쳐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신행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법문이 더욱더 필요하다. 법문은 힘겨움으로 지쳐가는 인간의 영혼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감로수가 된다.

대형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지방의 사원에서는 온라인 범회 진행은 여건상 실행하기

하현주 박사의 마음 밭 가꾸는 이야기 자비정원(慈悲正願)②

이 고통은 누구의 것인가?

정서전염과 상호의존성

지난 칼럼에서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서 또한 타인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 나의 정서가 타인에게, 또 반대로 타인의 정서가 나에게 전염된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슬픔 혹은 분노와 같은 이 정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고통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

에 속한 구성원들은 집단의 협력도가 증가하고 갈등이 줄어들었으며, 집단의 성과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기숙사에서 한 방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한 학생의 경우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하는 인지적 취약성까지도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삶의 때 순간 다양한 정서들을 시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전염성이 높아 정서전염은 타인을 즉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

마치 개인의 감정은 개인의 몸이라는 항아리 안에 담긴 물과 같아서, 그것을 쏟지 않는 이상 다른 항아리 안에 담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상이었다. 그러나 실상 개인의 정서라는 것은 나와 타인이 함께 공유하며 숨 쉬고 있는 대기와의도 같아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 들어온 공기를 나만의 것이라 할 수 없듯이 정서 또한 명확히 구분될 수 없기란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은 나의 고통이다’, ‘그것은 너의 고통이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정서전염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도허티(Doherty)에 따르면, 정서전염은 전염되는 정서에 따라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포(Cacioppo) 교수는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전염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시각각 주고받으며 뒤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서전염이 발생하는가? 인간의 정서는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진화해왔기 때문에 정서적 이해와 소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서전염은 이러한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언어적 소통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진화적 이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아이를 잃고 비통해하는 부모를 보면서, 왜 슬픈지 묻거나 사유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보다, 그 슬픈 얼굴을 보는 순간 슬픔에 전염되어 함께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상대를 이해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정서전염은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각성이라는 내적 경로를 통해 타인을 즉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정서적 상호의존성은 인간의 정서가 한 개인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이는 불교의 무아(無我)의 관점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나’이고, 이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 자기물임적 사고는 정서적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의 경험에는 ‘나의 것’도 ‘너의 것’도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 쉬운 번역!
- ✓ 간결한 표현!
- ✓ 읽기 쉬운 원문!

화명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심념처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2>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 보면 본다고 아십시오.
- 들으면 듣는다고 아십시오.
- 느끼면 느끼는다고 아십시오.
-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아십시오.
-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다고 아십시오.
- 맛보면 맛본다고 아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 가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알아가야 하나? 이것들이 실제로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가실 때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상은 이미 관념화된 것입니다. 관념화된 대상을 자세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실재에 대한 이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보십시오.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가볍게 인지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힘 주어서 애써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아십시오. 한 대상을 가볍게 아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다른 대상을 압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내가 한 소리를 듣고 있어도 마음은 또 다른 소리를 들읍니다. 각각의 대상에 각각의 마음이 따로따로 반응합니다.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다릅니다. 이 소리를 듣는 마음과 저 소리를 듣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엉덩이에 느낌이 있으면 가볍게 느낌 있다고 아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느낌을 알면 다른 마음이 일어나서 소리를 들읍니다. 그러면 가볍게 소리 있다고 아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느낌을 압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대상을 알아가는 대로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연스러운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

동적으로 알아차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실재의 일어남

알아야 할 것은 실재의 일어남입니다. 관념적 해석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일어남 그 자체를 아십시오. 뒤차가 내 차를 ‘뽕뽕’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뒤차가 내 차를 뽕뽕거리면서 지나갔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는 이러한 관념적 해석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자는 실제 일어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과 보았다는 것이 수행자의 관심이고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수행자는 봤다

럽게 활발하게 됩니다.

가볍게 알아가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능숙해지면 계속 이어지게 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을 이어지게 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으면 알아차림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일어나는 대로 가볍게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러 가지 대상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좋다고 생각될 때 가끔 스스로에게 ‘알고 있나?’라고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알고 있나?’라고 물으면 알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수긍될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수긍된다면 그것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가?’ 스스로 묻고 마음을 확인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대상과 더불어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것은 실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재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이 아닌 것을 아무리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한 이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엉덩이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아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얼마나 큼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없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모양, 색깔, 위치, 크기로 관념화시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관념화되지 않으면서 고유하게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의 작용을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관념화시켜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안다면 법으로써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보인다는 성질이 바로 대상의 성질이고 그것이 법”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관찰해야

고 알아야 하고 들었다고 알아차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선을 할 때와 경행을 할 때가 모두 같습니다. 좌선, 경행 일상의 삶에서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알아 가십시오. 알아차림에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마음이 계속적으로 알게 되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좌선을 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음이 멎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활발함이 약해지고 대상도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활발함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활발함이 생길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마음의 활발함을 키웁니다. ‘보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듣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마음에 관심이 생기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 집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하게 되고 몸이 활발하게 되면 마음도 자연스

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좋아함의 반응, 싫어함의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런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은 한순간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느낌과 소리를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을 나는 단지 관찰하기만 합니다. 대상을 바꾸어가면서 아실 때, 마음이 가볍고 활기찰 때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추어보십시오. 알겠다는 생각을 멈추어도 앎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가는 알아차림의 상태가 이 수행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알아차림의 방식입니다.

대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도 한순간 여

작용한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한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단지 아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관적으로 마음에서 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는 한순간 아주 많은 마음이 일어나서 아주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작용이 아는 작용입니다. 안다는 것이 알아지면 자주 자주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수행에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수행으로 수행의 기본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대상을 아는 것과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상은 어떤 모양, 어떤 리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색깔, 길이, 내용, 장소 등은 모두 관념화의 도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관념화된 것입니다. 관념화되었다는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 가는 것이 바로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에서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란 말을 하면서 보이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보인다는 성질로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보인다는 성질이 바로 대상의 성질이고 그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제12회 청소년 수련대회

총기 31년(2002년) 7월 31일 ~ 8월 2일

장소 : 지리산 수련원
주제 : 공명정대하고 부드러운으로
대상 : 전국 청소년 및 동해중학교 불교반

총기 32년 방생 법회

총기 32년(2003년) 7월 16일

서울·경기 : 각 사원별로 자체 방생
대구·경북 : 합천군 합천댐 용문정
부산·경남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농월정

제13회 어린이, 청소년 여름 학생 수련대회

총기 32년(2003년) 7월 24일 ~ 26일

장소 : 안동, 예천
내용 : 안동 일대 문화체험 (한지, 도자기, 탈춤)
참가인원 : 어린이, 청소년 89명

불기 2548년 연등축제 제등행렬 장려상 수상

총기 33년(2004년) 7월 7일

장소 : 조계종 총무원
내용 : 연등축제 제등행렬 장려상

제9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 법회

총기 33년(2004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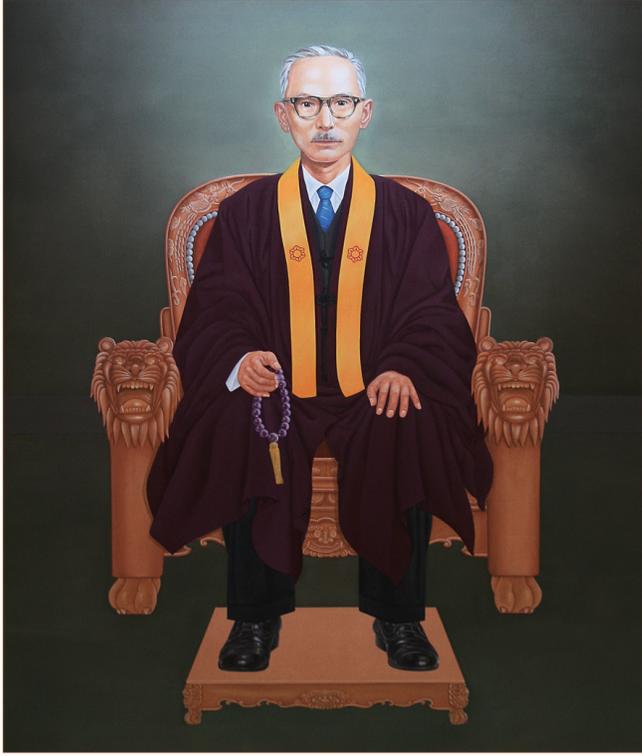
장 소 : 서울 총지사 서원당 오후 3시
참가자 : 조계종 중앙 총회위원장 방지하 스님, 홍파 스님, 남정 스님 등 내빈 25명, 전국 승단 교도 241명

제9회 어린이, 청소년 여름 학생 수련 법회

총기 33년(2004년) 7월 26일 ~ 7월 30일

1) 어린이 여름 학생 수련 법회
일시 : 7월 26일 ~ 28일
내용 : 신라 문화유적답사
장소 : 경북 경주 일대
참가인원 : 100여 명
2) 청소년 여름 학생 수련 법회
일시 : 7월 28일 ~ 30일
내용 : 보성녹차밭, 송광사 답사
장소 : 전남 순천, 보성
참가인원 : 120여 명

종조 원정 대성사님을 그린다.



강남구 역삼동 원정기념관에 모셔진 종조 원정대성사 현 초상화

습에 대해 “작은 책상을 놓고 곳곳이 앉아 경을 보고 글을 옮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한 줄이 남았다더라도 바로 그치고 책을 덮어 다음에 정해진 일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치밀하고 철저하게 행동 하셨습니다. 치밀함이 몸에 배어 매사가 시계마를 같았습니다.”고 회상했다. 또 대성사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김동운 각자(관성사 교도)는 “늘 한복을 정갈하게 갖추 입으셨습니다. 혼자 계시 때도 의복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허투루 웃거나 농담을 입에 담은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가버이 하지 않았고 궁극한 일이 있어 질문을 할 때만 말씀하셨습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번 대성사님의 진영을 맡아 그리게 된 이철규 화가는 “전통 초상화는 ‘털 한 오라기라도 닮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나似論).’ 또는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형상 재현에 그치지 않고 정신까지 담아낸다(傳神寫照)’는 작업이다.”며, 대성의 외형과 성격, 인품까지 추론하고 현존하지 않



이철규 화가가 통리원에서 6월 25일 종조원정대성사 진영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게서 열반하시자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형상을 만들어 그리운 마음을 달랠라고 전하는 바가 있다. 그 마음이 이어서 가르침이 되고, 법이 되었다.

윤원대도(輪圓大道),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정법 밀교를 다시 꽃피우기 위해 총지종을 세워 일으켜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몸소 보이셨던

원정대성사님께서 우리 곁에 그리움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해 본다.

박재원 기자

멀도 40주년 새 진영 제작, 화가 이철규 비단 위에 채색 “소탈하고 깨우친 모습,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것”

종단이 종조 멀도 40주년을 맞아 원정대성사님 일대기 편찬, 원정기념관 리모델링 등 대성사님을 추선하는 다양한 불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원정대성사님의 진영(초상화)을 새롭게 조성하여, 모실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진영은 일반적으로 조사(祖師)나 고승대덕의 초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 제작되나 이번 불사는 대성사님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 우리에게 남기고간 큰 지혜와 뜻을 밝히고 기려, 앞으로 다가 올 창종 반세기를 한마음으로 맞이하자는 의미를 두고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밀교사상개론』(2003년, 범장원 발행)에서는 “원정대성사는 타고난 품성이 영특(英特) 민첩(敏捷)하고 불굴(不撓不屈)의 의지와 정의감, 뛰어난 기지(機智)와 고매(高邁)한 인격을 소유한 큰 그릇으로 (중략) 단아하고 고상한 품성을 물려받았으며,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과 천재성을 지녔던 원정대성사는 어린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한 유가(儒家)의 경전을 두루 익혔으며, 탁월한 문필력과 더불어 주역(周易)과 노장(老莊)에도 조예(造詣)가 깊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대성사님을 곁에서 모셨던 지성 정사는 대성사님께서 창종을 선포 후 실지사에서 경전을 번역하던 모

는 인물에 대해 성격을 파악하려고도 하는 것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라고 자세를 밝혔다. 아울러 “대성사님의 생전에 소탈하고 깨우친 모습을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훈을 담은 영전 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스케치가 완료된 진영은 대성사님께서 총지종 금난모자와 법의를 수(垂)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으로 크기는 162.2(세로)x130.3cm(가로)로 그림 100호 사이즈에 해당되며, 필선을 중요시여기는 선묘법으로 그려져 비단 위에 채색된다.

불상이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유래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부처님



이철규 화가가 불에탄 철종 어린 복원을 위해 연구 중이다.

작가 이철규 화가 약력

- 현 예원예술대학교 미술조형과 교수 <초상화 제작 경력>
- 2020 회안대군 유상제작(회안대군파 종중)
- 2018 신잠상 영정제작(정읍시 무성서원)
- 2017 정극인 영정 제작(정읍시 무성서원)
- 2016 철종어진 모사(어진박물관)
- 2015 남원윤씨 종중 영정 제작(남원윤씨 오자등과파) 등
- 2014 복지겸 장군상 제작(당진군)
- 최치원상, 엄경와 상 등 20여 점 제작

<작가의 초상화 기법 특징>

- 조선시대 후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극세필로 안면부분(육리문, 肉理紋)을 묘사하는 기법 사용
- 음영법 위주의 육리문에 따른 준찰(皴擦)이 주도적으로 사용
- 배채법(背彩法)을 이용한 채색기법 사용
- 있는 그대로 그리는 사실묘사를 큰 미덕을 두고 있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총기 34년 방생 법회

총기 34년(2005년) 7월 16일

내용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방생 법회
장소 : 강원도 휴휴암(서울·경인 교구), 합천법(대구·경북 교구), 제천 의림지(부산·경남 교구)

제10회 어린이, 청소년 여름 학생 수련 법회

총기 34년(2005년) 7월 25일 ~ 29일

1) 어린이 여름 학생 수련 법회
장소 :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원
참가인원 : 학생 95명, 지도교사 7명
2) 청소년 여름 학생 수련 법회
장소 :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원
참가인원 : 학생 110명, 지도교사 7명

만보사 제1회 연꽃 축제

총기 36년(2007년) 7월 20일 ~ 31일

장소 : 대전 만보사
참가자 : 통리원장 원승 정사, 주교 지성 정사 등 종단 스승과 교도

제12회 어린이, 청소년 여름 학생 수련 법회

총기 36년(2007년) 7월 25일 ~ 29일

장소 : 경상남도 합천 청소년 수련관
참가인원 : 어린이 102명, 동해중 144명, 승직 8명, 종무원 10명, 지도교사 10명, 자원봉사 4명 포함 총 278명 참석

총지종 여름 수련 법회 및 동해중 여름 수련 법회

총기 37년(2008년) 7월 28일 ~ 8월 1일

장소 : 남해 한려유스호텔
참가인원 : 총지종 수련 법회 138명, 동해중 수련 법회 98명 총 237명 참석

제10차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 대회 참석

총기 39년(2010년) 7월 16일 ~ 18일

장소 : 충남 공주 사곡면 운암리 전통불교문화원
참가자 : 배공주 교무, 박종한 교무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41)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17)

법경 정사 (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중생의 마음은 항하(恒河)의 모래 수 만큼이나 많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중생의 마음을 밀교의 대경인 『대일경』을 통해 살펴본다.

미심(迷心)

중생의 마음은 미혹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미심(迷心)이라 한다. 미혹한 마음이다. 『대일경소』에 미혹한 마음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미혹한 마음이라 하는가? 집착하는 것이 진실과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미혹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향하고자 하여도 다시 서쪽을 향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와 같다.’

이 마음이 아니고 저 마음인 것을 말하고, 저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이다. 바르게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종조님께서도 이르시기를, ‘마음이 바로 서면 정신(精神)이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귀신(鬼神)이라 하듯이 미혹된 마음이 곧 귀신이다. 미심(迷心)은 바른 수행을 방해한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생각으로는 부정관(不淨觀)을 학습하고자 할지라도 그 반대로 청정한 상을 취하며 스스로 나는 지금 부정관을 닦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무상(無常) 무아(無我)를 닦을 때도 도리어 나는 영원하다는 미혹한 생각을 지니며 내가 지금 무상 무아를 닦고 있다고 하는 말하는 것이다. 마음이 산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부정관은 인간의 몸이 더러운 것을 깨달아 탐욕심을 없애는 수행법이다. 그런데 부정(不淨)하다는 것을 관함으로써 더러운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도리어 청정을 관하는 것은 부정관이 아니다. 물론 부정을 관하는 목적이 청정한 마음으로서 탐욕심을 없애는 것에 있으므로, 청정을 관하는 것이 곧 부정관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부정관은 더럽다는 것을 관하는 것이 청정 그 자체를 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법이 다르므로 바른 수행이 아니다. 이처럼 중생의 마음이 본말이 어긋나므로 미심(迷心)인 것이다.

또 무상 무아를 관함은 일체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영원하다고 여긴다면 무상 무아와 거리가 멀다. 집착과 아만으로 갈등과 대립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를 다스리는 법을 『대일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마음을 전일 하게 해서, 자세하고 편안하며, 상세하게, 전도됨이 없이 그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이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마음의 관찰을 주문하고 있다. 마음의 관찰을 통해 우리는 육근(六根)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미혹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독약심(毒藥心)

중생의 마음을 삼독심으로 표현한다. 세 가

지의 마음이 독(毒)이라는 것이다. 세 가지의 독심(毒心)은 탐심·진심·치심이다. 그야말로 독약(毒藥)과 같은 마음이다.

이 독약심을 『대일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무엇을 독약의 마음이라 하는가? 분별이 끊어진 법에 집착하여 닦는 것을 말한다.’ 무명(無明)과 명(明), 무지(無智)와 지(智)에 대한 분별이 없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멋대로 생각하여 수행하는 것이 독약심(毒藥心)이다. 자가당착이오, 아전인수격의 마음이다. 올바른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법(正法)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독약심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독이란 용, 뱀, 약초의 온갖 지독한 독을 말한다. 사람이 독에 중독되어 혼절하고 사경을 헤매게 되어 목숨이 끊어질 때와 같이 이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착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말려진 대로 움직여 행하고 점차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는 식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독에 중독되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멈추게 되고 바른 판단이 있을 수 없다. 지혜가 없음은 마치 독약에 중독된 것과 같다. 이를 다스리는 법은 지혜를 닦아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이를 『대일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수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치고 나면, 대비(大悲)의 온갖 선을 일으켜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만이라는 공허한 견해를 여의어야 한다.’

망견(妄見)을 버리고 정견(正見)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독(毒)에 물들기 쉽고 악심(惡心)에 연합하게 된다. ‘지혜와 자비는 감로묘약’이라고 『대일경소』에서 말하고 있다.

견삭심(羅索心)

견삭이란 밧줄을 말한다. 그렇다면 견삭심(羅索心)이란 무엇인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밧줄의 마음[羅索心]이라 하는가? 모든 곳에서 나를 계박하는 것에 머무는 성품을 말한다.’

계박이란 동여매어 묶는 것을 말한다. 즉, 속박하는 것이다. 무엇을 속박한다는 것인가? 『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사람이 밧줄에 묶여서 손발과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이 멀어져 없어지는 것에 사로잡힌 생각과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생각의 묶임에 빠져 있는 것이다.’

밧줄로 묶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마음도 어느 한 곳에 집착하면 거기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즉 잘못된 생각과 무지(無知)로 인하여 자신을 집착과 망식(妄識) 속에 빠지게 만든다. 마치 밧줄에 묶인 손발과 팔다리와 같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러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사로잡힌 생각과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로잡힌 생각이란 단견(短見)을 말한다. 단견은 짧은 생각이란 뜻이나 바르지 않은 생각, 전도된

생각으로서 고통을 낳은 인(因)이다. 즉 열반(涅槃)과 대치는 개념이다. 열반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탈한 경지이다.

또한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생각은 무지(無知)이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단견과 무지는 먼저 자신을 병들게 한다. 『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수행자의 마음을 결박하고, 나아가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구속되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가장 무거운 장애이다.’

집착과 단견, 무지는 어리석음의 삼종 세트라. 어리석음의 인(因)이오 근(根)이다. 이로 인하여 반목과 시기, 질투를 유발하며, 고통을 일으킨다. 고(苦)의 원인이다.

이를 끊어 없애는 것이 지혜이다. 그 지혜는 연기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연기의 진리에서 우리는 고(苦)를 소멸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바르게 가져갈 수 있다.

『소』에서 단견과 무지를 없애는 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연기의 바른 혜(慧)의 칼로 장애의 덩개를 끊어 없애야 한다. 이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지혜의 칼로써 단견(短見)과 무지(無知)의 덩개를 끊어 없애야 한다. 이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의 증득이며 고(苦)를 소멸하는 길이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마가다 왕족출신 돛비빠

「84성취자전」에 출현한 인물들은 나란다사 승원대학 출신인 경우가 많다. 나란다사는 삼장을 구축한 도서관이 있으며 석가모니 붓다 이후 테라와 다와 대승, 현밀의 전통을 고루 보존해 왔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란다사에서 학문과 수행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출가와 재가의 경계도 세속제 인간사의 일일 뿐이다. 유명한 티로빠나 나로빠도 학장으로서 설법으로서 세간의 존경을 받았지만 내면적 진실을 마주할 때 의심이 다하

지 않았고 결국 가사와 발우를 내려놓고 시장과 화장터, 강가에서 철저히 혼자 되었다. 돌이켜 보면 석가모니 붓다가 건립한 출가승단은 수행자로 하여금 번뇌 종자를 발현케 할 외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였는지 모른다. 이름을 전하지 않는 많은 선사들도 오도(悟道)를 감추고 아뢰야식 저변의 미세번뇌를 털어내는 자기완성의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 「84성취자전」의 성취자들은 승의세속 양제를 넘어 출가 재가의 경계에서 자유로웠는데 돛

비빠도 그 가운데 속한다. 돛비빠는 중인도 마가다 출신의 왕족이었다. 그는 일찍이 위루빠를 만나 해와즈라판뜨라의 구전을 얻어 성취를 이루었다. 돛비빠는 왕위를 계승했지만 승상을 비롯한 측근과 백성들은 돛비빠가 성취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왕은 승상에게 말하길,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도둑과 강도들이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들은 공덕을 쌓지 않아 가난과 배고픔이 창궐하고 있다. 나라를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물

리치기 위해 나무에 큰 종을 달도록 하라. 만약 누군가 범죄나 가난을 본다면 그로 하여금 종을 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승상은 말대로 따랐고 이윽고 마가다에는 공포와 가난이 사라지게 되었다. 어느 날은 천만계급의 악단이 도시에 들어와 왕을 위해 노래와 춤을 공연하였다. 돛비빠는 공연자가 가운데 자신의 배우자로서 인연 있는 처녀를 알아보고 청혼할 것을 악단의 단장에게 요청하였다. 리더는 자신이 천족인 것을 들어 거부하였으나 왕은 상응하는 재물을 주고 혼인을 강요하였다. 돛비빠는 12년간 수행하였고 이윽고 사람들은 왕비가 명비로서 수행자의 짝인 것을 알게 되었다. 돛비빠는 왕위를 아들에게 양도하고 명비와 숲에 몸을 숨기고 다시 12년간 수행하여 큰 성취에 이르게 되었다. 돛비빠가 왕위를 양위한 후 마가다

는 국세가 점차 기울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백성들은 다시 모여들어 옛왕인 돛비빠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일으키길 요청하여 사절을 보내게 되었다. 이때 왕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는데 명비는 물을 길으러 갈 때 연못의 연잎을 밟아도 물에 빠지지 않았고 15척의 깊이의 정수를 떠서 왕에게 바쳤다. 사절은 크게 놀랐고 이를 왕실에 보고하였다. 다시 사절을 보내 왕과 명비는 숲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호랑이를 타고 독사를 채찍으로 삼았다. 왕실과 백성들은 왕으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돛비빠는 “지금도 나도 천족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신분과 상관없이 통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하면서 자신과 명비를 불에 태울 것을 요구하였

다. 사람들은 전단향목을 모아 돛비빠와 명비를 태우게 되었는데 그 불길은 무려 일주일간 그치지 않았다. 이때 백성들은 해와즈라와 금강녀로 화한 두 사람의 환신을 보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마가다국의 왕실과 백성들은 불교에 신심을 갖게 되고 돛비빠와 명비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때부터 돛비빠는, ‘천족의 돛비빠’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왕실과 백성들은 다시 나라를 다스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돛비빠는 “내가 그대들을 다스리려면 그대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몸을 불살라야 한다. 이 세상은 공덕은 적고 고통은 많은 곳이다. 나는 대신 법의 왕이 되어 그대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답하고, 다까(지금강과 지금강녀)가 있는 정도의 세계로 갔다고 「84성취자전」은 전하고 있다.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 대표 최병철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핸드폰 010-2877-6137

종합 동해중 소식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 학생 돌봄 운영 최선

마스크착용 거리 두기로 수행평가, 회장 선거 치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학교 내에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등교 전, 등교 시, 등교 후, 학교 급식 등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역물품을 완벽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만전을 가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식을 생략하고 등교한 이래 전체 학생 총 471명은 수업 및 수행평가와 6월 12일~13일 양일간 학생회장 선거까지 무사히 마치며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3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고 있으며, 1학년과 2학년은 격주로 등교하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매일 등교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학 기간이 축소되면서 방학 전 기간을 포함하여 원어민 선생과 함께하는 여름 영어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7월 2일부터 진행되는 영어캠프는 오는 8월 13일까지, 또 방학 중인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전액 무료로 희망 학생들이 수업 예정이다.

학교는 또 아직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중단되었던 행사와 소모임을 앞서 관리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교어머니회(반야회)와 어머니독서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늦어진 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은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 거리 두기’로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3학년 5반 홍진솔 군이 당선되었으며, 3학년 1반 하대현, 2학년 1반 고건우, 1학년 4반 백정훈 군이 각각 학년 회장에 당선되었다.

통리원 종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코로나19로 대외사업이 축소되고 예정되었던 행사가 취소되는 가운데 불교총지종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종무원 교육을 매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실시한 종무원 교육은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의 지도 하에 불교의 역사와 갈래, 한국불교 종파의 각 특징 등 불교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교육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종무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현재 ‘불교총지종’ 책을 기반으로 종조 원정 대성사와 창종의 역사부터 불교총지종의 지표, 밀교 수행법 등을 두루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불교 관련 서적을 선별하여 서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승원 정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종무원들이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총지종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또한 차후 직무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교육자로서 다짐을 전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종무원 교육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전서호 기자

불교총지종을 알아가는 일이란?

불교총지종의 교무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입사하기 전까지는 불교 종파가 얼마나 나뉘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종단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불교총지종에 대해서는 입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불교총지종이 밀교 종단이라는 것과 현교와 달리 불상이 없고, 절을 하는 대신 염주를 사용해서 불공을 드린다는 등 다른 종단과 다른 점에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리원 박혜선 교무

하지만 혼자로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공부가 되지 않아 늘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교무 교육을 통해 불교의 다양한 종파의 전래, 현교와 밀교의 차이, 불교총지종의 역사 등을 들으면서 그 아쉬움을 해소하고 종단의 깊이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총지종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과연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심 화두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무로서 스승님께 직접 총지종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수업을 들을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값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불교총지종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 나가며 마지막 수업을 할 때에는 스승님이 던져준 화두에 나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실의에 빠진 친구에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대뜸 “나, 회사에 안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직에서 명퇴한 친구는 연봉도 꽤 높고 숙소까지 제공해주는 아주 괜찮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나오라는 새로운 제안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설득하자 잠시 말이 없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 외로워. 아내가 죽고 삶의 의미가 없어졌어.” 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2년 전, 상처한 친구는 요즘 혼자 살고 있다. 장성한 남매가 수시로 집에 들러 돌봐주고는 있지만, 자식들이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줄 순 없다. 외출했다가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올 때의 쓸쓸함, 잠잘 때 옆자리의 허전한 등을 하소연하기에 넘치시 그러면 여자를 사귀어보라 했더니 “나, 아직도 먼저간 아내가 많이 그립다”면서 “돈도 같이 쓸 사람이 있어야 별 맛도 나는 법”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친구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심리학자 흠즈와 라헤 박사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사례를 스트레스 지수로 환산해 ‘스트레스 평정값’을 만들었는데 3위가 별거, 2위가 이별, 1위가 배우자의 죽음이었다. 별거나 이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이지만 배우자의 죽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큰 충격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특히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충격은 더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쉽지 않다. 일시적인 이별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어볼 수 있다. 별거라면 관계가 회복되면 예전처럼 다시 사랑하며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음이 갈라놓은 이별은 절

망과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유독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멋진 곳을 가더라도 아름다운 줄 모른다.

사랑도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의식이 한곳에 매몰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그 하나의 상황에 몰려 있거나 거기서 파생된 의식의 흐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삶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다. 심한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동굴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때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늪이든 동굴이든 일단 들어가면 혼자서 나올 수가 없다. 나오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곁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도, 말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독서도 한 방법이다. 등산이나 탁구처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죽음과 같은 인간의 이성으로 제어하기 힘든 것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경 작가는 심리치유 에세이 『천 개의 공감』에서 “사랑은 봄의 발갛거나 겨울의 자연적인 산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기를 지게 만드는 것처럼, 산불이 나서 숲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사랑은 마음 자리를 비우고 편안하게 만듭니다.”라고 했다. 친구에게는 봄에 같이엎을 밭도, 산불이 날 숲도 없다. 오직 황무지 같은 마음만 남아 있을 뿐이다.

친구는 지금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말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해줘. 죽고 나면 다 소용없어.” 조만간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

시인 김정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7668610,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Position, Date,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the Buddhist Total Relief Foundation.



슬픔도 깊으면 힘이 세진다

슬픔도 깊으면 힘이 세진다

전운호 시집

114

‘붓다와 문학’ 연재 전운호의 새 시집 제2의 고향 춘천에 대한 시 68편 수록

전운호 지

판형 신국판 / 120쪽

발간일 2020년 6월 10일

정가 9,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복인

침이 목을 타고 오른다/ (중략) 멀리 버스 오는 소리 들리는데/ 나가는 길이 보이”(『샘밭에서 산책하기』 중에서)

시인은 정선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친 뒤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동국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1991년 ‘현대문학’으로 시를 추천받아 등단했다. 여러 출판사에서 기획편집자로 일했으며 10여 권의 시집을 포함하여 동화, 소설, 아동서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시와시학상 젊은시인상, 한국시협 젊은시인상을 수상했다. 시인은 현재 총지신문 ‘붓다와 문학’ 연재 중이다.

“더 갈 수 없어 의자 찾아왔으면/ 멈춰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그만 가시라 나는 돌아갈 테니/ 항 법 새 풍기는 안개 속에서/ 뜨거운 기

올해 제30회 편운문학상을 수상한 전운호 시인이 새 시집 ‘슬픔도 깊으면 힘이 세진다’를 출간했다. 30년 동안 10여 권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은 그의 ‘제2의 고향’ 춘천에서 4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지은 춘천에 관한 시들을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샘밭, 서면 호수, 소양댐, 풍물시장 등 춘천의 장소와 사람에 대한 68편의 시를 엮었다.

전 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이념, 지향과 생각들이 강하게 스며든 생활세계를 통상적 언어 세

계로 성찰하며 돌려세움으로써 자신의 문장을 완성해오고 있다. ‘슬픔도 깊으면 힘이 세진다’는 이때까지 평생을, 앞으로도 시가 전부이고, 시 외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작품에는 자신보다는 세상의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담겼다.



섭리

성우 스님

오라고 손짓하여도
쉬이 오지 않는다
가라고 등 떠밀어도
쉬이 가지 않는다.

가고 오는 것
그 모두 섭리려니

숲을 맑게 가꾸어야
학이 둥지를 튼다.

인연은 만드는 것
선연은 쌓는 것
공덕은 짓는 것

섭리란 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섭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바로 공덕과 악덕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위드드라마 2010년 7월호 중에서 -



전운호 시인의 붓다와 문학

너무도 인간적인 승려가 남긴 역사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三國遺事)



자료사진 = 삼성현역사문화관 일연스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를 말하자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다. 고려의 문신 김부식이 국가의 뒷받침을 받으며 여러 문인들을 동원해 만든 삼국사기는 통치 이념과 유교에 충실한 관의 저술인 만큼 중요한 역사서로 인정받기는 하나 지나치게 사대적인 관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김부식이란 인물 자체가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는 당대의 문장가이기도 했으나 함께 문명을 떨치던 정지상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묘정의 난을 토벌한 후 정지상을 처형한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두 사람 모두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문명을 떨쳤으나 김부식이 정지상

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함과 엄정함을 기본으로 하는 역사서를 편집하는 책임자로 부족했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스님은 나라의 지원을 받은 김부식과는 달리 일개인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최씨 무인정권이 나라를 장악하던 때로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일연은 속가명이 김견명으로 아버지는 지방 향리 출신이었다고 한다. 승려가 된 후 상사과라는 과거에서 급제했다고 하니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누락한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다. 단군신화를 비롯한 역대 왕들의 계보와 불교문화사 그리고 일산의 풍속, 전설 등을 풍부하게 수록함으로써 자료가 부족한 우리 고대사에 귀중한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삼국유사를 선택하겠다고 까지 했다. 워낙 방대한 저술인 만큼 평생에 걸쳐 준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운문사에 머물 때부터 집필에 착수해 인각사에서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그가 만년을 인간사에게 지내게 된 이유가 흥미롭다. 그는 만년에 이미 국사인 국조으로 불리울 만큼 불교계의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굳이 지금의 군위에 있는 인간사에 머물게 된 이유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다. 출가인이라면 세속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보통인데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지방으로 돌아온 노승의 행보는 지극히 인간적이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참으로 인간적인 승려가 쓴 인간적인 역사서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차가운 문벌귀족 김부식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이 민간의 전설과 신화에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여 수록하게 하였고 몽고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군신화와 같은 건국신화에 주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삼국유사는 역사서이면서도 국문학의 걸작으로도 읽힌다. 이 외에도 특정 종파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불교신앙을 포용하는 집필 성향을 보여주는 데 선종과 교종을 가리지 않았고 사전적인 성격을 띠는 저술이 많았던 것은 후학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들어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사진 = 국립중앙박물관

벽룡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취급 품목

- ▶방수공사전문업체
- ▶각종페인트 도·소매
- ▶인테리어 집칠
- ▶기와칠 벽돌방수
- ▶공사청부



SAMHWA 삼화페인트 NOROO

한달 늦게 오신 부처님, 한마음으로 봉축

5월 30일 전국 사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서원



총지사 종경 법공 대종사가 법어를 내리기 전 교도들에게 합장을 하고 있다.



총지사 교도들이 육법공양 중 향, 등, 차 공양에 이어 과일 공양을 올리고 있다.



정각사 스승과 교도들이 일체 중생의 평안과 건강을 서원하고 있다.



화음사 조규일 진주시장이 예방하여, 주교 우인 정사 및 교도들과 함께 봉축했다.



만보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육법공양을 올리며 자비와 광명이 충만하길 서원했다.



정각사 성화사 어린이 불자들이 아기 부처님께 관육 의식을 올리고 있다.

가림막 사이에 두고 '안전한 공양'



본산 총지사 공양실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스승들과 중무원들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공양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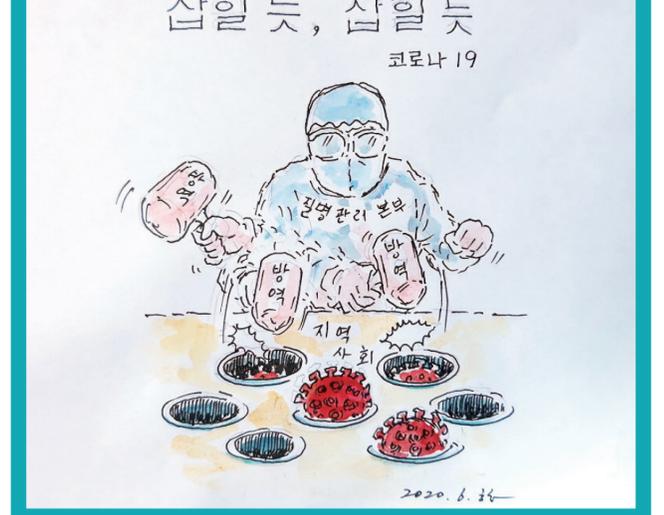
불교서적 월간베스트

6/1 ~ 6/3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요가디피카 (야행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야행가 / 현천스님	선요가
3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낫한 / 이현주	불광출판사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5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7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 / 김계윤그림	불교신문사
8	수구즉득다라니	불공 금강 / 석법성	운주사
9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10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본지풍광 설화)	성철스님	장경각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인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제주경애'에 의한 진인 '출몰야호사'로써 국민안만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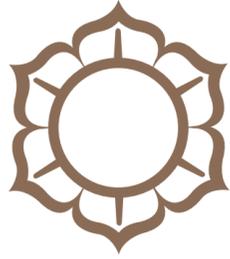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승인동)	(02)762-1412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승전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부산,경남교구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단화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552-7901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연동) (055)223-2021	
대구,경북교구					
법화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전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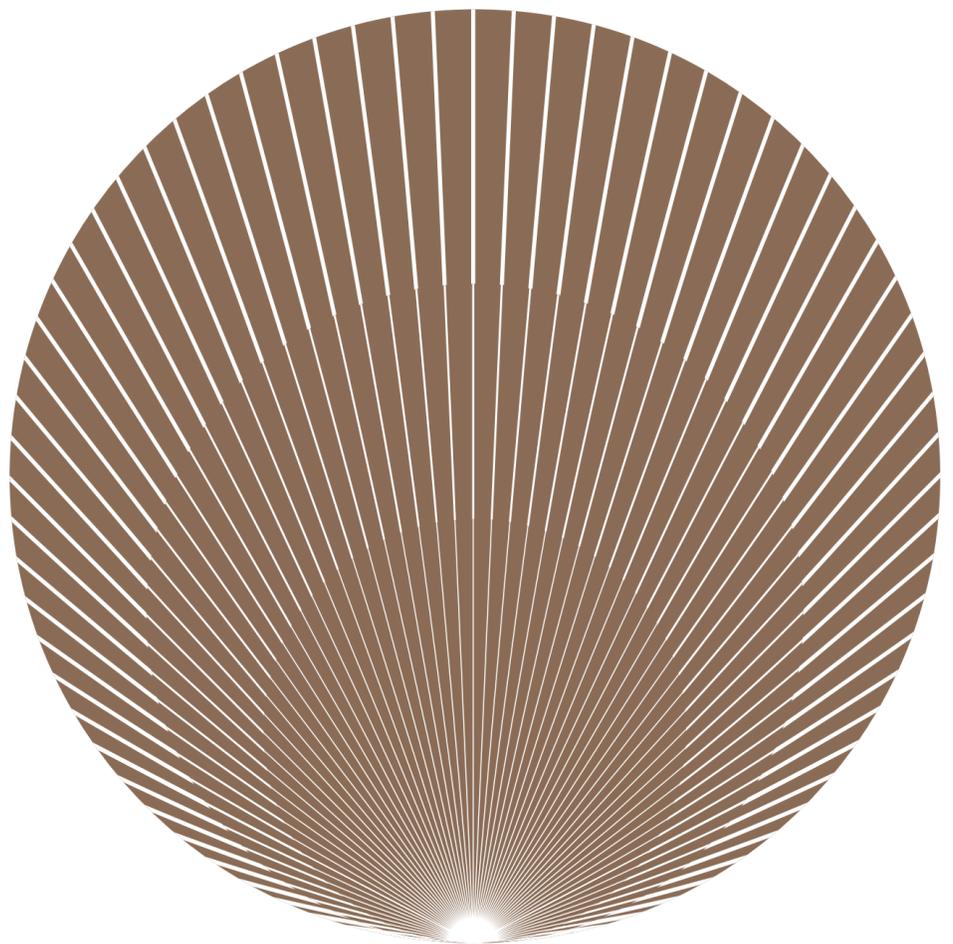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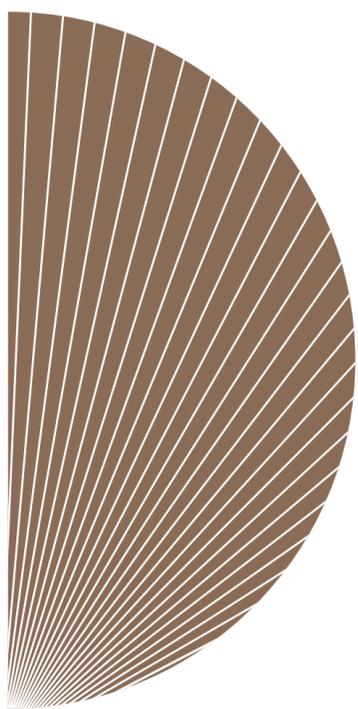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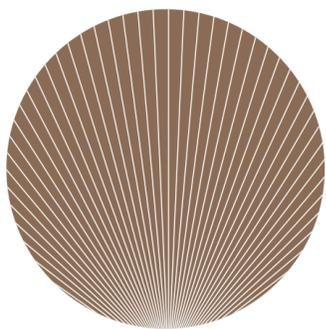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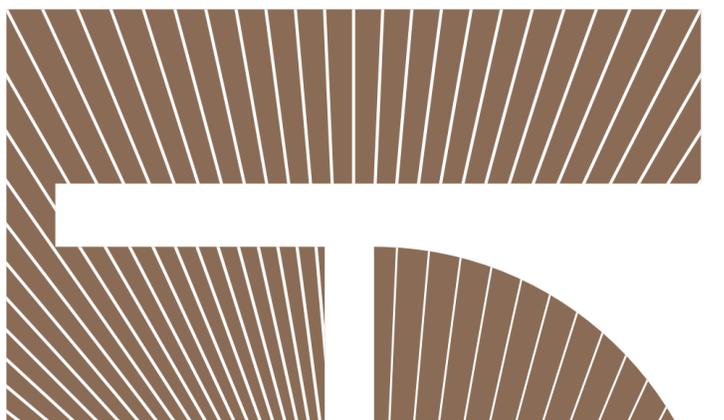
손
心

指
日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止

史



마감 일정

2020. 10. 31.